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국어 I’과 SAT의 ‘Chinese with Listening’ 비교

- 체제와 문항을 중심으로\*

박 찬 욱  
(서울여자대학교)

## I. 서론

본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국어I’과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격인 SAT의 ‘Chinese with Listening’을 체제, 문항별로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1)</sup>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어과 교육과정(II) (2007:99~100)》을 보면 중국어I 과목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sup>2)</sup>

‘중국어 I’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을 높여 중국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초급 수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길러 간단한 말이나 글로써 중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1) 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국어I은 [중국어]로 표기를 통일하고, SAT의 Chinese with listening은 [Chinese]로 표기를 통일한다.

2) 이하 《외국어과 교육과정(II)(2007)》는 <교육과정>으로 표기를 통일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교과 과정의 이수 결과를 측정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메뉴얼(2004:5)>에는 제2외국어 영역시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3)</sup>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은 기초적인 제2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제2외국어가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언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언어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시험이다.

위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교과목으로서의 중국어I과 평가시험으로서의 [중국어]가 모두 의사소통 능력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교육 과정과 그 교육 내용에 대한 최종 평가—대학수학능력시험—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적 연계성이 실제로 평가로서의 [중국어]에도 잘 반영되어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중국어I에 대해 <교육과정(2007:100-109)>이 기술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목표: 언어기능, 문화  
내용: 언어기능, 언어재료, 문화  
평가: 언어기능, 문화

하지만 <메뉴얼(2004:13)>은 대학수학능력의 평가 항목을 다음에 국한하고 있다.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문화

언어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은 언어기능과 언어재료를 모두 포괄하고

---

3) 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메뉴얼(2004)>은 <메뉴얼>로 표기를 통일한다.

있지만 <매뉴얼>은 언어기능을 배제한 채 언어재료만 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언어재료에 기초한)언어기능 교육이 그것의 총체적인 성취평가에 있어서는 언어지식 평가로 축소되어, 결과적으로는 제도적 서술에서 보인 일관성과는 다르게, 교육과 평가가 상호 불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서의 '프랑스어', '일본어' 등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중국어]에 대한 논의는 손민정(2010)이 유일하며 그 내용도 2001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중국어]시험을 대상으로 한 문항분석에 국한되어 있었다. 나아가 본고에서 논의코자 하는 SAT와의 비교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프랑스어 영역의 박진형(2006)이 유일할 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의 입시 개선을 위해서는 입시로서의 [중국어] 평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타국과의 입시 비교를 통한 자국 입시의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를 밑거름으로, [중국어]를 [Chinese]와 비교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일치의 원인을 내외부적으로 짚어 보고 나아가 좀 더 나은 [중국어] 평가를 위해 그것의 개선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는다. 본문에서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SAT를 비교하고 외국어 영역으로서의 [중국어]와 [Chinese]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두 영역 간의 평가목적, 평가영역, 출제범위, 평가문항<sup>4)</sup> 등을 비교한다. 그 다음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국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비교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중국어]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한다.

## II. 본론

###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SAT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

4) 평가문항 비교는 2009, 2010, 2011학년도 [중국어]와 2011년도 《The official study guide for all SAT Subject Tests(2nd edition)》에 수록된 [Chinese]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로서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5) 국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은 대입 학력고사의 폐지와 더불어 1994학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어]는 2001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제2외국어 영역의 택일과목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체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문항수	시간	만점	출제범위(선택과목)
영역					
언어		50문항	80	100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리 (택1)	‘가’ 형	30문항 (수학 I 12문항, 수학 II 13문항, 선택 5문항)	100	100	수학 I + 수학 II +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과목 중 택1)
	‘나’ 형	30문항	100	100	수학 I
외국어(영어)		50문항	70	100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1)	사회 탐구	과목당 20문항	30	50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4
	과학 탐구	과목당 20문항	30	50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 중 최대 택4 * 단,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만 선택 가능
	직업 탐구	과목당 20문항	30	50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2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문항	40	50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b>중국어 I</b> ,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등 8과목 중 택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별 문항수 및 출제범위>6)

5)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2010:1)> 참조.

6)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보도자료(2010:5)>, <2011학년도

SAT는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서 지식과 그것의 적용력을 테스트한다.<sup>7)</sup> 비영리 민간 조직인 CollegeBoard가 주관하는 이 시험은 그 명칭의 다양한 함의가 말해주듯<sup>8)</sup>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응시자의 입학자격 부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로 기능하며 논리력시험(Reasoning Test)으로 불리는 SAT I과 과목시험(Subject Test)이라 불리는 SAT II로 나뉜다. SAT I에서는 독해와 작문, 수학을 공통적으로 보고 SAT II에서는 문학, 역사, 과학, 외국어 등의 영역 총 20개 과목 중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그 체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영역 \ 구분	문항수	시간	만점	유형
Reading	48 19	70 (20+25+25)	800	Passage-based reading Sentence completion questions
Math	44 10	70 (20+25+25)	800	Multiple choice Student-produced responses
Writing	25 18 6 1	60 (10+25+25)	800	Improving sentences Identifying sentence errors Improving Paragraphs Essay

<SAT I 영역/과목별 문항수 및 출제범위><sup>9)</sup>

영역 \ 구분	문항수	시간	만점	과목
English	90	60	800	Literature
History	90 95	60 60	800 800	United States History World History
Mathematics	50	60	800	Mathematics Level 1 Mathematics Level 2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2010:2, 9)> 참조.

7) <http://sat.collegeboard.com/about-tests/sat> 참조.

8) SAT에 대한 약어 풀이는 다양하다. 학업성취시험(Scholastic Achievement Tests), 학업적성시험(Scholastic Aptitude Tests), 학업평가시험(Scholastic Assessment Tests) 등으로 불리다 현재는 입학전형 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794205>) 참조)

9) <http://sat.collegeboard.com/practice/sat-practice-questions> 참조.

Science		80	60	800	Biology E/M Chemistry Physics
		85	60	800	
		75	60	800	
Language	Reading only	85	60	800	French
		85	60	800	German
		85	60	800	Spanish
		80-85	60	800	Italian
		70-75	60	800	Latin
		85	60	800	Modern Hebrew
	Language with Listening	85	60	800	French
		85	60	800	German
		85	60	800	Spanish
		<b>85<sup>10)</sup></b>	<b>60</b>	<b>800</b>	<b>Chinese</b>
	80	60	800	Japanese	
	80	60	800	Korean	

<SAT II 영역 문항수 및 교과목><sup>11)</sup>

두 시험 간에 보이는 체제 간 가장 큰 차이는, 제2외국어 영역 과목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 영역은 전체 400점 만점에서 50점, 즉 8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0점 만점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간 원점수 비교에서도 2분의 1 비중을 갖는다. 하지만 SAT는 각 과목의 원점수를 모두 800점 만점으로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과목 간 비중에서 보이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

## 2. [중국어]와 [Chinese]의 체제 비교

### 1) 평가목적

<메뉴얼>에는 [중국어]만의 평가목적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개념으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을 뿐이다. <메뉴얼(2004:5)>에서 제2외국어 영역 시험에 대해 내린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 CollegeBoard 웹사이트에는 현재 95개로 명시되어 있지만 《The official study guide for all SAT Subject Tests(2011:471)》에는 85개로 되어 있다. 본고는 후자를 따랐다.

11) <http://sat.collegeboard.com/practice/sat-subject-test-preparation>, 《The official study guide for all SAT Subject Tests(2011:3)》 참조.

기초적인 제2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 제2외국어 I영역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을 통해 배양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언어사용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시험

위의 규정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목적을 추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의 학문 연마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다.

그렇다면 [Chinese]의 목적은 어떨까? 《The official study guide for all SAT Subject Tests(2011:471)》에서 기술된 [Chinese]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sup>12)</sup>

현대 중국인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표준중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시험 상의 문제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일반적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교재 또는 교수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평가목적에서 보이는 두 시험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의 명시성이다. <Guide>에서는 중국어면 중국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각기 다른 시험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외국어별로 세부 평가영역도 다르다. 그러나 <매뉴얼>에서는 '제2외국어 영역'의 목적만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중국어]만의 목적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해당과목이 평가를 위한 독립 영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기인한다. 과목 간 비중의 차이를 두지 않아 상대적으로 독립된 성격을 갖는

12) 이하 《The official study guide for all SAT Subject Tests(2011)》은 <Guide>로 표기를 통일한다.

[Chinese]와 달리 [중국어]는 자율적인 평가 과목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보다는 외국어 영역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적 제시의 구체성이다. 위에 제시된 평가간 목적을 보면, [중국어]보다는 [Chinese]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개념은 언어지식과 언어기능은 물론, 그것을 학습자가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이해, 표현, 반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필시험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중국어]에게는 기대 이상의 큰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Chinese]의 목적은 그와 같이 큰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평가 대상으로서의 문화보다는, 모든 언어사용에는 문화가 바탕이라는, 맥락으로서의 문화를 표방하였고 특히, 듣기와 읽기가 부각된 [Chinese]의 특징을 ‘이해력(understanding) 측정’이라는 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중국어]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 2) 평가영역

평가영역 부분에서도 [중국어]는 기타 제2외국어영역과 평가영역을 공유한다. <메뉴얼(2004:5~6)>에 제시된 평가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발음 및 철자의 식별력	10%
어휘력	10%
문법 이해력	17%
의사소통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53%
문화이해 능력	10%

그리고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각각 아래와 같다.

### (1) 발음 및 철자의 식별력

- \* 외국어 자, 모음의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자, 모음 결합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단어와 단어 연결시 발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 \* 외국어 철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 \*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2) 어휘력
  - \* 단어의 일차적 의미 및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 \*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 관용적 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3) 문법 이해력<sup>13)</sup>
  - \* 어법에 맞는 표현, 잘못된 표현 등을 찾아낼 수 있는가
  - \* 문장의 구조와 단어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가
- (4) 의사소통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 \*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5) 문화이해 능력
  - \* 일상의 언어 사용과 밀접히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

[중국어]의 평가영역은, 평가의 주 영역이 언어기능보다는 언어재료에 치우쳐 있는 것<sup>14)</sup> 목표하는 바도 주로 '이해하는가'라는 인지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국어]는 [Chinese]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어]가 언어 지식에 대한 이해력과 적용력을 평가한다면 [Chinese]는 언어 기능에 대한 수행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Guide>에 제시된 [Chinese]의 평가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Listening comprehension	33%	Usag33%
Reading comprehension	33%	

13) <매뉴얼(2004:6)>에는 '적절한 시제, 동사의 변화형 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14) <교육과정(2007:102~105)>에 제시된 교과내용은 크게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나뉜다. 언어적 내용은 다시 언어기능과 언어재료로 나뉘며 언어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언어재료는 발음 및 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소분류된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istening comprehension

\* 구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2) Usage

\* 중국어 문장을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맞게 할 답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3) Reading comprehension

\* 주요 정보와 부가 정보, 주제 그리고 지문의 체제 등에 대한 이해력을 테스트한다.

이와 같은 평가영역 분류는, [중국어]와는 대조적으로, 언어기능을 평가의 주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의 요구도 듣기, 읽기 등의 ‘할 수 있는가’라는 행동의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istening과 Reading은, 선행발화를 듣고 뒤이어 올 수 있는 후행 발화문을 선택한다든지 주어진 단락을 읽고 필요 정보를 집어낸다든지 하는, 각 문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수행 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중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지식(knowing)’과 ‘수행(doing)’이라는, 언어습득과정에서의 기준으로 이와 같은 차이를 분류한다면 [중국어]는 ‘지식’에, [Chinese]는 ‘수행’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중국어] 2011:7)<sup>15)</sup>

A: Zuijin guò de hǎo ma?

B: \_\_\_\_\_.

① Wǒ jiù shì      ② Nǎr de huà

③ Mǎfan nǐ le      ④ Háishi lǎo yàngzi<sup>16)</sup>

([Chinese] 2011:2)

[A:你喜欢打什么球?]

[B:\_\_\_\_\_。]

[A. 我喜欢打电话。]

[B. 我想去买球鞋。]

15) [중국어]는 기출문제인 반면 [Chinese]는 <Guide> 상의 문제이다. 때문에 출처의 표기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중국어] 뒤로 나오는 ‘2011:7’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7번 문제’를 의미하지만 [Chinese] 뒤에 있는 ‘2011:2’는 ‘2011년판 <Guide>의 2번 문제’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⑤ Jiù zhèyàng dǐng le

[C. 我只打网球。]<sup>17)</sup>

좌측의 예문은 [중국어], 우측의 예문은 [Chinese]이다. 보기에는 유형상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중국어]는 듣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공란의 적절한 답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반면에 [Chinese]는 어떠한 지문의 제시도 없이 음성만을 듣고 그에 해당되는 답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중국어]는 A의 질문을 '본' 뒤 그에 어울리는 대응어를 선택하지만 [Chinese]는 A의 질문과 보기를 먼저 모두 '들은' 뒤 그에 적절한 대응어를 선택한다. 따라서 [중국어]가 호응이 되는 말을 '알고 있는가'하는 지식을 평가하고 있다면 [Chinese]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가'하는 수행능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범위

<메뉴얼(2004:10~12)>에 제시된 제2외국어 영역의 출제범위를 [중국어]의 출제범위로 대입,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발음 및 철자

- \*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의 발음 및 철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휘

- \* 어휘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없는 단어는 주석을 달아준다.
- \*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국어과의 기본 어휘수는 822개이고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어휘수는 132개(교과서I 공통사용 어휘수)이다.

16) 문제 보기 상의 밑줄은 정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17) [Chinese]예문에서 보이는 각괄호는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만 제시된 사항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3) 문법

- \* 중국어I 과목은 별도의 추가 제의 문법사항 없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예시문의 해당사항과 보편적인 문법사항 위주로 출제한다.
- \* 중국어과의 문법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사항을 참고한다.

(4)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

- \* 가급적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과 해당 예시문 중심으로 출제한다.

(5) 문화

- \* 문화는 해당 외국어 사용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중국어]의 출제범위는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에 부록으로 제시된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어]의 각 문항에 제시된 지문은 모두, ‘기본 어휘표’ 상의 어휘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상의 문법 및 기능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이에 반해 [Chinese]의 출제범위는 국한되어 있지 않다. “교과과정 학습내용을 반영한다” 정도로 제시되어 있을 뿐 그것의 범위는 초급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적이며 주석도 부가하지 않는다.18)

(1) Listening comprehension

- \* 문제는 주로 일상의 주제에 대한 짧은 대화와 서술에 기초한다.

(2) Usage

- \* 문제는 교과과정의 학습내용을 반영한다.

(3) Reading comprehension

- \* 지문 중 일부는 시간표, 문서양식, 광고, 주의, 서신, 일기, 신문기사와 같이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등에 기초한다.

---

18) 김미순(2011)은 SAT II를 초급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본고 역시도 그에 따랐다.

출제범위에서 보이는 두 시험의 차이는, 무엇에 '기반'하는가와 무엇에 '대한' 것인가라는 두 질문으로 정리 가능하다. 우선 [중국어]는 무엇에 '기반'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 출제 시 이용되는 재료의 출처—기본어휘, 의사소통 기본 표현—를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시험 준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자칫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위험을 안을 수 있다. 손민정(2010:395)은 문항의 연도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유로, 기존 문제유형에 대한 익숙함을 극복하고 응시생 집단의 수준 제고에 따른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문제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출제 범위의 제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출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 패턴의 익숙함을 극복하고 상승하는 학습자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복잡한 문항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Chinese]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제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써 재료 출처가 개방적이고 그 결과는 응시자에게 폭넓은 준비를 요구한다. 이러한 범위의 개방은 자칫 난이도 조정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Chinese]는 제시할 지문의 장르—대화, 시간표, 문서양식, 광고, 주의, 서신, 일기, 신문기사 등—를 다양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동시에 폭넓은 준비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

### 3) [중국어]와 [Chinese]의 문항 비교

앞 절에서는 주로 두 시험의 체제별 차이를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체제간 차이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중국어]와 [Chinese] 문항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들 두 평가시험은 비록 '지식'과 '수행'이라는 중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문항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크게 '발음 및 철자'와 'Listening comprehension', '어휘, 문법'과 'Usage', '의사소통 기능'과 'Listening/Reading comprehension' 등으로 영역별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 ① '발음 및 철자'와 'Listening comprehension'

'발음 및 철자'와 'Listening comprehension'은 모두 발음이 기초가 된다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어]는 한자 발음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묻는 반면 [Chinese]는 발음에 기초한 문장의미의 조직, 나아가 맥락에 대한 이해도까지 묻는다.

([중국어] 2011:1)



- ① fēi    ② gāi    ③ hēi    ④ kāi    ⑤ pāi

([Chinese] 2011:3)

- [A: 你的飞机什么时候起飞?]  
 [B: \_\_\_\_\_。]  
 [A: 我们去飞机场接你。]  
 [B: 他什么时候都有空。]  
 [C: 差不多两点半左右。]

위의 예에서 [중국어]는 한자의 발음이 병음으로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하지만 [Chinese]는 동일 한자—飛—를 문장 속에 위치시켜, 발음은 물론, 그것을 듣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까지 조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중국어] 2009:3)

< 보 기 >

a. 约-药	b. 考-烤	c. 挑-跳
d. 象-像	e. 躺-趟	

- ① a, c    ② b, d    ③ a, c, d  
 ④ b, c, e    ⑤ b, d, e

([Chinese] 2011:22)

[对不起, 我现在不能跟你谈这个问题。昨天晚上睡得太晚, 今天一早起来就头疼, 吃了两颗药, 还是不行。]

- What is the speaker's problem?  
 A. He spent too long debating an issue.  
 B. He got up too late for work.  
 C. His sleeping pills are all gone.  
 D. He has a headache and can't concentrate.

위의 예에서도 [중국어]는 각 한자들의 발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형태상 비슷한 한자들의 발음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반면에 [Chinese]는 이어지는 음성 연속체 속에서 ‘藥’의 음을 분절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음절

의 의미가 단락의 핵심의미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해 보면, 두 평가 영역은 요구 기반이 모두 발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갖는다. 첫째, [중국어]가 ‘발음을 아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Chinese]는 ‘발음을 아는가’는 물론,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까지 그 초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발음’이란 말 자체가 갖는 함의는 눈에 의한 변별보다 귀나 입에 의한 변별을 토대로 한다는 점, 그리고 한자의 발음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원어민의 발화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어]는 지식으로서의 변별력을, [Chinese]는 수행으로서의 변별력을 요구하고 있다.

② ‘어휘, 문법’과 ‘Usage’

‘어휘, 문법’과 ‘Usage’는 모두 어휘와 문법에 대한 중국어 지식을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지문에 제시된 어휘는 난이도 면에서 평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로서의 ‘어휘’ 영역은, [중국어]가 문항마다 다의, 반의 등 좀 더 심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Chinese]는 대체로 직접적이고 단일한 지식만을 요구하는 경향을 띤다. 문법 영역에서도 [중국어]는 한 어법항목에 대해 여러 문법지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지만 [Chinese]는 [중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두 영역 간 비교는 논의의 편의상 의미, 논리, 문법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의미 면의 차이를 살펴보자.

([중국어] 2010:4)

A: 我不知道这个字的意思, 请你告诉我。  
B: 我也不太清楚。

- ① 这个故事太没有意思了。
- ② 大家的意思是明天一起去。
- ③ 我觉得打乒乓球很有意思。
- ④ 李先生, 这是我的一点儿小意思。
- ⑤ 老师说“立刻”就是“马上”的意思。

([중국어] 2011:4)

A: 我看这项帽子挺漂亮的。  
B: 颜色太深了, 我喜欢\_\_颜色的。

- ① 细
- ② 轻
- ③ 浅
- ④ 紧
- ⑤ 矮

[중국어]는 ‘재미(있다)’, ‘의견’, ‘성의’ 등 ‘意思’가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묻거나 ‘太...了’에 의해 표현된 불만족스러움—深—에 반대되는 단어—淺—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모두 특정 어휘가 갖는 의미의 속성을 묻는 문항으로서 최소 두 개 이상의 의미항 또는 반대되는 의미자질을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Chinese] 2011:36)

([Chinese] 2011:52)

- 我们可不可以\_\_\_\_\_休息一会儿? 林老师\_\_\_\_\_放春假的机会, 带学生去了趟中国。
- |        |       |
|--------|-------|
| A. 唱起来 | A. 借着 |
| B. 坐下来 | B. 靠着 |
| C. 听出来 | C. 按着 |
| D. 看上去 | D. 顾着 |

[Chinese]는, 특정 어휘가 갖는 의미자질에 대해 묻기 보다는, 보기 중 어느 어휘가 주어진 지문 상의 기타 어휘와 의미적 호응을 이루는지 묻고 있다. 36번 문항은 지문의 ‘休息’와 의미적 호응을 이루는 어휘 ‘坐下来’를, 그리고 52번은 ‘机会’와 의미적 호응관계를 갖는 어휘 ‘借着’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논리 면에서 보이는 차이를 살펴보자.

([중국어] 2010:24)

([중국어] 2011:24)

姐姐 (a) 吃饭, (b) 看书。	我真没想到, 他 (a) 这么容易的问题 (b) 回答错了。
(a) 边 (b) 边	(a) 越 (b) 越
① 有 有	① 连 都
② 越 越	② 既然 就
③ 从 到	③ 虽然 但是
④ 既然 都	④ 因为 所以
⑤	⑤

[중국어]와 [Chinese] 모두 두 명제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사

문제가 출제된다. 위에 제시된 예는 ‘吃飯’과 ‘看書’, ‘問題容易’와 ‘回答錯’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풀 수 있다. [Chinese] 역시 이와 같은 문항이 출제된다.

[[Chinese] 2011:39)

虽然他<sub>1</sub>在英国住过, \_\_\_他不太会说英文。

- A. 然后
- B. 但是
- C. 而且
- D. 于是

[[Chinese] 2011:55)

你\_\_\_给他写信, 不如给他大电话。

- A. 关于
- B. 因而
- C. 与其
- D. 无论

[Chinese]가 [중국어]의 논리문항과 보이는 차이점은 힌트의 제시 여부에 있다. 호응되는 연결사 모두를 공란으로 제시하는 [중국어]와 달리, [Chinese]는 두 연결사 중 하나를 이미 지문에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39번, 55번 문항은 ‘在英国住’와 ‘不說英文’, ‘寫信’과 ‘打電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자주 호응되는 두 연결사를 유심히 관찰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다음으로 문법에서 보이는 차이를 살펴보자.

[[중국어] 2010:26)

<보기>

- a. 今天比昨天冷一点儿。
- b. 北京的秋天比哪里都美。
- c. 他的衣服比你的衣服干干净净。
- d. 他今天比昨天多看了一个钟头的电视。

- ① a, b
- ② a, c
- ③ b, d
- ④ a, b, d
- ⑤ b, c, d

[[Chinese] 2011:35)

她唱歌唱得比我\_\_\_好。

- A. 再
- B. 就
- C. 更
- D. 并

문법 면에서 [중국어]는 어휘 영역의 특징과 유사하다. 즉, 한 문항을 통해

특정 문법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포괄적인 지식을 묻는다. 반면에 [Chinese]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식을 요구한다. 위의 두 예는 모두 ‘比자 비교문’을 묻는 문항이다. 이 중 [중국어]는 ‘比자 비교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예문을 모두 선택하는 문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 첫째, ‘A+比+B+(부사)+형용사+보충어’의 구조를 갖는다.
- 둘째, 형용사의 복사는 ‘매우’의 의미를 가지므로 성립할 수 없다.
- 셋째, 부사 자리에는 ‘還’나 ‘更’ 등 형용의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만 올 수 있다.
- 넷째, 보충어 자리에는 비교의 정도를 표시하는 성분이 와야 한다.

그러나 [Chinese]는 첫째, 셋째 조건만 알면 답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다음 예에서도 보인다.

([중국어] 2009:11)

([Chinese] 2011:43)

- |                |                |
|----------------|----------------|
| ① 我还没去了中国。     | 去年他___写了三封信给我。 |
| ② 你最近见了不见他?    | A. 曾           |
| ③ 她常跟朋友看了电影。   | B. 没           |
| ④ 我已经看了完这本杂志。  | C. 送           |
| ⑤ 我们明天吃了晚饭就回去。 | D. 会           |

두 문항은 모두 조사 ‘了’와 관련되어 있는데, [중국어]는 5개의 문장 중 합문법적인 문장을 택일하는 문항이다. [중국어] 문항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 첫째, 중국어의 조사 ‘了’는 동태조사 ‘了’와 어기조사 ‘了’로 나뉜다.
- 둘째, 동태조사 ‘了’는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 그러나 결과보어가 올 경우 동사 뒤에 위치하지 못한다.
- 셋째, 동태조사 ‘了’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부정사 ‘不’와 호응할 수 없으며 ‘沒’가 올 경우엔 생략된다.

넷째, 동태조사 ‘了’는 일상의 반복에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V1了...就V2’ 구조에서 ‘就’와 호응하여 동작의 연이은 발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Chinese]는 지문 속에 여러 가지 문법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문 상의 ‘去年’과 보기 속의 조동사 ‘曾’는 시간성의 불일치로 인해, 지문의 ‘寫’와 보기의 ‘送’은 모두 동작 의미의 위배로 우선 배제된다. 힌트에 의해 두 개의 보기가 배제되면 나머지 ‘曾’과 ‘了’만 남는데, 이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了’와 관련된 위의 조건이 단서가 된다. 즉, 위의 조건 중 세 번째 조건—‘沒’와 양립할 수 없다—에 의해 ‘了’가 배제되면서 자연스럽게 ‘曾’이 답으로 선택된다.

유사 의미를 가진 단어의 용법을 변별하는 문항에서도 [중국어]는 포괄적인 지식을, [Chinese]는 단일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향을 띤다.

([중국어] 2011:27)

([Chinese] 2011:48, 50)

A: 昨天你买的梨甜不甜?  
 B: 甜极了。我想明天(a) 再/又 买点儿放着。  
 A: 明天(b) 又/还 买? 看来你真喜欢吃梨。  
 B: 你(c) 也/还 买点儿吧。

虽然你不想去, 可是\_\_得去。

- A. 已
- B. 刚
- C. 也
- D. 连

- |   | (a) | (b) | (c) |
|---|-----|-----|-----|
| ① | 再   | 又   | 还   |
| ② | 再   | 还   | 也   |
| ③ | 再   | 还   | 还   |
| ④ | 又   | 还   | 还   |
| ⑤ | 又   | 又   | 也   |

前天他刚从英国回美国来, 明天\_\_要去英国了。

- A. 还
- B. 再
- C. 才
- D. 又

[중국어]와 [Chinese] 모두 ‘또, 역시’라는 의미를 가진 세 단어—‘再’, ‘又’, ‘也’ 간의 용법을 묻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는 이들 세 어휘의 용법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지만 [Chinese]는 그 중 하나를 문맥에 맞게 변별하면 된다.

종합하면, ‘어휘, 문법’과 ‘Usage’는 모두 언어지식을 묻는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차이점도 갖는다. [중국어]가 포괄성과 복합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Chinese]는 직접성과 단일성에 기초하여 필요지식을 요구한다. 그 결과, [중국어]는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Chinese]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를 갖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영역별 문항수와 출제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우선 문항수 면에서 보면, [중국어] 전체 영역에서 ‘어휘,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이고 [Chinese]에서 ‘Usage’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서 비중 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문항의 절대적인 수를 비교해 보면 각각 8개 문항, 25개 문항으로 어휘, 문법 등에 대해 [Chinese]가 질문할 수 있는 폭은 [중국어]를 크게 능가한다. 그 다음으로 출제 범위 면에서, [중국어]의 어휘, 문법영역은 모두 ‘기본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벗어날 수 없는 반면<sup>19)</sup> [Chinese]는 그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적은 문항수와 한정된 출제 범위라는 한계를 갖고 또 외부적으로는 유형에 대한 익숙함과 상승하는 학습자 수준이라는<sup>20)</sup> 두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중국어]는, 특정 어휘나 문법항목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반면에 많은 문항수와 개방된 출제범위를 갖는 [Chinese]는, 사회적인 요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로, 심도있고 복합적이기 보다는 많은 수의 직접적이고도 단일적인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언어항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핵심지식만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의사소통 기능’과 ‘Listening/Reading comprehension’

‘의사소통’이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의미를 창출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sup>21)</sup> 언어재료로서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

19)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없는 단어는 주석을 달아준다(<메뉴얼(2004:10)>참조).

20) 손민정(2010:395) 참조.

2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2)—외국어(1997:185)》 참조. 이하 <교육과정 해설>로 통일한다.

문'은 위와 같은 정의를 실천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 표현 모듬이며<sup>22)</sup> 그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이들 두 평가 영역은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언어재료와 언어기능 중 무엇에 기초해 있는지 그리고 지문 제시에 있어 대화문과 실용문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두 평가영역도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 2009:14)

A: \_\_\_\_\_, 请帮我搬一下桌子。  
B: 好的。

- ① 请问
- ② 还可以
- ③ 麻烦你
- ④ 请慢走
- ⑤ 非常感谢

([중국어] 2011:16)

A: \_\_\_\_\_?  
B: 有点儿长。有没有短一点儿的?  
A: 那你试试这条吧。

\*试: 시도하다

- ① 合适不合适
- ② 这条太小了吧
- ③ 你穿多少号的
- ④ 喜欢不喜欢长的
- ⑤ 你要什么样子的

위의 두 지문은 A, B가 말차례를 주고받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공란에 답을 매위 음성으로 실현시킬 경우엔 'Listening' 영역으로 출제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느 듣기 영역의 지문과 동일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란을 매우기 이전의 문항 자체는 듣기 영역의 대화 지문으로 성립 불가능하다.

22) 예시문 제시를 위한 의사소통 기능항목은 아래의 분류 범주에 준한다.<교육과정 해설(1997:186)>

범주	영역		분류 및 제시 기준
대인적 기능	친교적	일상적	친소 관계
개인적 기능	생각	느낌	지적, 정의적 태도
지시적 기능	부탁, 약속	지시, 명령	강약의 정도
정보 탐색 기능	정보 교환	의견 교환	구체와 추상
창의적 기능	문제 해결	가상(가설, 상상)	대상과 활동

23) [중국어]의 2009학년도 14번 문항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서 '지시 및 명령표현'의 '부탁'에 속하고 2011학년도 16번 문항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서 '생활관련 표현'의 '물건사기'에 제시되어 있다.<교육과정(2007:265~266)>

왜냐하면 대화는 누군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을 읽고 이해한 뒤에야 공란에 맞는 모두 발언을 (‘대화’와는 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문항은 ‘Listening’이 아닌 ‘Reading’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점은 ‘의사소통 기능’과 ‘Listening/Reading’ 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즉, ‘의사소통 기능’은 대화문 이용이 많다는 점에서 지문의 유형상 ‘Listening’과 더 많이 대응되며, 반대로, 대화문에 대한 이해력과 적용력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음성이 아닌 문자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측정항목상 ‘Reading’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Chinese]는, ‘Listening’ 영역의 지문은 대화문을, ‘Reading’ 영역의 지문은 실용문을 채택함으로써 측정항목별 지문을 이원화하고 있다.

아래는 동일 형식의 지문을 이용한 ‘의사소통 기능’과 ‘Listening’ 간 비교이다.

([중국어] 2009:12)

([Chinese] 2011:16)

A: 谢谢您来送我们。  
B: \_\_\_\_\_, 欢迎再来!

[A: 我们一起去游泳, 好吗?]  
[B: 好是好。可是我不会游泳, 怎么办?]

- ① 不可以                      ② 不客气
- ③ 不满意 ④ 不愿意
- ⑤ 不着急

- [A. 别担心, 我可以教你。]
- [B. 没办法, 我们一定要去。]
- [C. 不客气, 你先拿去用吧。]

두 평가 영역은 모두 대화문을 이용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있으나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첫째, 대응어 요구의 방식이다. [중국어]는 공란을 둘 때 후행화자의 대화문 일부를 공란으로 두어 단순 대응어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Chinese]는 후행 화자의 대화문 전체를 공란으로 둔다. 둘째, 대응어의 내용이다. [중국어]는 ‘哪儿啊’, ‘没问题’, ‘不好意思’, ‘不用了’ 등 일종의 상용어구(套話)를 주로 요구하지만 [Chinese]는, 상용어구를 포함하여, 선행발화에 부응하는 실질적 정보제공을 주로 요구한다.

다음으로 지문의 다양성 측면에서 '의사소통 기능'과 'Reading'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 전자의 지문은 주로 대화문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후자는 광고, 신문, 대자보, 우편물, 기관 게시물 등 다양한 실용문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어] 2011:8)

病从口入，饭前洗手。

① ② ③ ④ ⑤

([중국어] 2011:14)

学汉语不花钱!

我叫李华，北京人，现在住在首尔，想学韩语，有想学汉语的韩国人，请找我，我们一起学习。

电话：000-0000-0000

- ① 李华没有钱学汉语。 ② 李华教汉语不收钱。  
 ③ 跟李华学汉语不花钱。 ④ 李华现在在首尔生活。  
 ⑤ 要学汉语的韩国人可以找李华。

위의 두 문항은 [중국어]에서 보이는 광고문과 게시물이다.<sup>24)</sup> 이와 같은 실용문의 채택은 근래 들어서부터인데 그 양은 비록 적지만 지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Chinese] 2011:68)

北京新街口外大街二十五号

王铁群先生收

上海南京路六十三号 李寄

- Who sent this letter?
- A. A student  
 B. A manager  
 C. A resident of Shanghai  
 D. A resident of Beijing

([Chinese] 2011:76)

日本餐馆

本州中部请有经验营业经理

周六日有休假并提供宿舍

有意者请电555-7729

- What position is being advertised?
- A. Salesperson  
 B. Research librarian  
 C. Restaurant manager  
 D. Dietitian

24)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중국어]에서는 광고문을 채택하지 않았던 반면 2011학년도 [중국어]에서는 2편의 공익광고가 채택되었다.

위의 두 문항은 [Chinese]에서 보이는 우편서식과 광고의 예이다. [Chinese]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용문은 광고, 약 복용설명서, 신문기사, 대자보 등 매우 다양하며 광고만 하더라도 개업광고, 세일광고, 구인광고, 서적광고 등 소재의 차별화도 두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 기능’과 ‘Listening/Reading comprehension’은 모두 의사소통을 중점에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평가 영역과 비교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전자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언어재료에 기초해있는 반면 후자는 듣고 읽을 수 있는가 라는 언어기능에 기초해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나아가, ‘의사소통 기능’ 영역이 대화문에 기초한 읽기 능력 측정이라는 다소 모호한 성격을 띠게끔 한다. 즉, ‘의사소통 기능’ 영역은 ‘기능’이라는 제목과는 반하게 실제로는 언어재료—의사소통 기능 예시문—로 평가영역을 제한하면서 지문을 주로 대화문에 국한시키고 있고, 그래서 ‘Listening’ 영역과 유사하지만 문맥을 파악하고 공란을 채운다든지 지문에서 요구되는 핵심정보를 집어낸다든지 하는 등, 그것의 해결 방법은 ‘Reading’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문의 다양성 면에서는 여전히 ‘Reading’의 그것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 사실 어느 영역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여지가 존재한다.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은 평가할 수 있어도 거기서 얻은 성취가 곧 그것의 수행능력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의사소통 기능’ 영역은 여전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고 ‘Listening/Reading’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듣고 읽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중국어]와 [Chinese]의 비교 분석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SAT를 비교하고 그것의 일부 영역인 [중국어]와 [Chinese]에 존재하는 체제별, 문항 영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교의 과정에서 각 부분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본고에서는, [중국어]

를 중심으로, 그 중요 원인을 양국의 인적, 언어적 차이에 두고자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중국어I이 갖는 비중과 SAT에서 Chinese with Listening이 갖는 비중의 차이부터 다시 살펴보자. [중국어]는 만점대비 8분의 1의 비중을, [Chinese]는 만점대비 시험보는 과목 수, 즉 n분의 1의 비중을 갖는다. 이 점은 대학입시에서의 지위뿐 만아니라, 좀 더 나아가, 교과과정에서의 지위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단일 언어(monolingualism) 국가이기도 하다. 모국어를 제외하고는 영어에서부터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모두 '외국어'로 통칭된다. 이들 외국어 속에서 영어는, 입시 비중 상 모국어와 같은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어로서 그 비중이 절대적이고 나머지 외국어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그 결과 외국어와 관련한 교육 및 입시 정책은 수요조사와 필요성, 입안과 실행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완급을 조정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이민족 이주 정책에 의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민족이 미국 전역에 걸쳐 살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지만 같은 민족끼리 있을 때는 해당 민족어를 사용하며 이중 언어사용(bilingualism) 생활을 한다. 이민족의 분포와 수에 따라 언어사용 인구는 다를 수 있지만 각 민족은 자신의 민족어가 학교의 교과과정과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sup>25)</sup> 이에 외국어가 한국처럼 '절대적 지위의 외국어 하나와 그 외의 기타 외국어' 식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그들 나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한국에서는 '기타' 제2외국어의 하나로서 중국어 교육이 실행되지만 미국에서는 제2외국어의 하나로서 중국어 교육이 실행된다. 이처럼 양국의 인적, 언어적 구성 차이는, 중국어 과목이 두 국가의 대학입시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해석은 또, 한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이 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설명해 준다. 외국어의 수요와 필요성이 모두 정부 주도 하에 조정되는

25) 한국어가 SAT II의 선택과목으로 채택되기까지 교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주경희(1996)를 참고하라.

한국에서는 1981년 제 4차 교육 과정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외국어 교육과정 이 목표, 내용, 지도, 평가 등에 걸쳐 통일된 체제로 구성, 운영되어 왔다.<sup>26)</sup> 그 결과 대학입시에서도 중국어 과목은, 독립된 개체 과목으로서 그만의 시험 기준을 갖고 시행되기보다, 시험개념 및 목표, 출제지침과 범위, 문항수와 시행지침까지 모두 ‘제2외국어 영역’의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 통합 관리 되고 있다. [중국어]의 목적이 [Chinese]보다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외국어 공통의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된 외국어 시험과목 관리는 그것의 용이한 관리를 위해 지필시험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또 지필시험이 갖는 한계로 인해 언어기능 평가보다는 언어지식 평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조건은 또, 교육과정과 입학시험 기준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낳았다. 즉, 언어지식 평가에 대한 지향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시험출제 방향을 이격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국어I의 하위항목과 입시 <메뉴얼>에 제시된 중국어I의 하위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교육과정(2007:100~109)>				
목표	언어기능		문화	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내용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언어기능	언어재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 및 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		
평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메뉴얼(2004:13)>				
출제범위	언어기능	언어재료	문화	
	?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		

26) <교육과정 해설(1997:17)> 참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분량을 종전보다 하향조정하여 수업의 부담을 낮춘 대신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sup>27)</sup> 위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평가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입시로서의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은 <교육과정> 상의 평가항목과 일치하고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메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범위' 항목이 <교육과정>의 '평가'항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메뉴얼>의 출제범위는 <교과과정> '내용'의 '언어자료' 항목과 일치한다.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언어기능 평가가 출제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된 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언어지식 평가만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괄적인 시험과목의 관리로부터 빚어진 지필시험 형식의 외국어 영역 평가는 언어의 지식평가에 대한 지향을 낳고 결과적으로 교육과정과 시험출제 방향 간의 불일치라는 현상까지 낳게 되었다. 문항 간 비교에서 언급되었던, 적은 문항수와 제한된 출제범위 역시 이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제도적 배경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국어]는, 입학시험의 취지를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sup>28)</sup> 규정된 <메뉴얼>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어]를 대비했던 학습과정과 결과는 입시를 위해 으레 치러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서 여기는 데 끝날 뿐 대학진학 후의 중국어 교육과 연계를 가질 여지를 만들지 못하고, 어학 본연의 목적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sup>29)</sup>

27) <교육과정 해설(1997:26)> 참조.

28) <메뉴얼(2004:5)> 참조.

29) 정소영(2011:329~330)은 통계자료를 통해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이 대학에서의 중국어 교육과 무관함을 설명하였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서, 제2외국어가 수능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III. 결론

지금까지 논의된 비교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SAT 간 비교에서 [중국어]는 [Chinese]보다 그 비중이 덜 하다. [중국어]는 시험의 목적에서부터 문항까지 독립적인 개체과목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둘째, [중국어]와 [Chinese] 간 체제별 비교에서, [중국어]는 제2외국어 영역의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목적의 명시성과 구체성이 [Chinese]보다 못하며, 평가영역별 항목에 있어 [중국어]는 언어재료적인 면에, [Chinese]는 언어기능적인 면에 맞춰져 있다. 출제 범위에 있어 [중국어]는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Chinese]는 그 범위가 개방되어 있다.

셋째, [중국어]와 [Chinese] 간 문항별 비교는, 체제간의 차이로 인해, [중국어]가 발음 및 철자, 어휘 및 어법, 의사소통 기능 등 전반에 걸쳐 언어의 지식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반면 [Chinese]는 Listening, Usage, Reading 등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경향을 띤다.

넷째, 두 시험영역 간 비교에서 보이는 차이는 근본적으로 양국의 인적, 언어적 차이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기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국어I이 <교육과정>에 부응하면서도 <메뉴얼>의 “의사소통능력 측정 시험”으로서도 기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의 방향을 시사해 줄 수 있다.

첫째, 평가의 패러다임이다. 지식 평가 위주에서 기능 평가 위주로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체제 전체의 변화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메뉴얼>의 평가영역이 <교육과정>에서의 평가영역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실천방법 중 하나로서, 듣기 영역의 도입이 필요하다. 출력으로서의 말하기,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입력으로서의 듣기, 읽기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현재, <메뉴얼>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지필시험의 특성 상 시험 전반에 걸쳐 읽기 부분은

시행되고 있으니 영어 과목의 시험시행관례를 참고하여 듣기부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실천방법으로서, 출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초급 중국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Chinese]처럼, 초급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할 부분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손민정(2010:395)이 문항의 특성 분석을 통해 시사하듯, 응시자들의 수준은 앞으로도 갈수록 높아갈 것이며 동일한 문제 유형에도 분명 익숙해질 것이다. 이에 문제 출제 역시 분명 한계에 봉착할 것인데, 현재처럼 포괄적이고 복잡한 문제만 계속 늘려갈 경우 자칫 지식만을 위한 평가로 평가의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2)—외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II)》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정 총론》  
 김미순 2011 「언어수준별 중국어능력평가 양상에 대한 소고—초중급 평가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中國言語學會 春季學術大會 發表論文集』, pp.251~275  
 박진형 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프랑스어와 SAT II French 비교 분석」,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6 학술대회논문집』, pp.38~66  
 손민정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I 문항 특성 분석」, 『中國語文學』第56輯, pp.377~418  
 정소영 2011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의 문제점」, 『中國言語研究』第34輯, pp.319~346  
 주경희 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SATII에서 한국어 채택의 의의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國語教育學研究』6, pp.185~2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보도자료」  
CollegeBoard 2011 《The Official Study Guide for All SAT Subject Tests(2nd  
edition)》, CollegeBoard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205>

<http://sat.collegeboard.com/about-tests/sat>

<http://sat.collegeboard.com/practice/sat-practice-questions>

<http://sat.collegeboard.com/practice/sat-subject-test-preparation>

[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_id=10134](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_id=10134)

[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_id=10135](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_id=10135)

[http://www.kice.re.kr/ko/board/list.do?cPage=2&menu\\_id=10135](http://www.kice.re.kr/ko/board/list.do?cPage=2&menu_id=10135)

❖ ABSTRACT

Comparative studies of systems and questions between  
*Chinese I* in the Korea National Scholastic Aptitude Test and  
*Chinese with Listening* in the SAT

Park, Chan Wook

This paper aims to compare systems and questions between *Chinese I* in the Korea National Scholastic Aptitude Test(abbreviated by KNSAT) and *Chinese with Listening* in the SAT.

In the beginning, we compared KNSAT and SAT, and then focused our attention on *Chinese I* in KNSAT and *Chinese with Listening* in SAT in terms of assessment purposes, sections, ranges, questions.

Through the research,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ly, compared KNSAT with SAT, it is found that *Chinese I* is less important in KNSAT than *Chinese with Listening* in SAT. *Chinese I* belongs to one of the second foreign languages section, and it is placed under common rule of its section. However, *Chinese with Listening* is similar to *Chinese I* in that it also belongs to one of the languages section, but it keeps under its control, so it has its own system e.g. purpose, range etc.. Next, compared *Chinese I* with *Chinese with Listening*, in the matter of purposes of them, *Chinese I* is less explicit and less concrete to explain it than *Chinese with Listening*, and in respect of sections of them, the sections of *Chinese I* are leaning more toward language materials contrary to *Chinese with Listening* leaning more toward language functions. And in terms of ranges of them, *Chinese I* is limited to *Basic vocabulary* and *Examples of communicative function* in curriculum of *Chinese I*, but *Chinese with Listening* has not any limit on the ranges of questions. Lastly, with regard to questions of them, *Chinese I* has more tendency toward assessing knowledge of Chinese, on the contrary, *Chinese with Listening* has more tendency toward assessing performance of it.

---

**Key Words**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SAT, Chinese with Listening, 체제, 문항  
the Korea National Scholastic Aptitude Test, Chinese I, SAT, Chinese with  
Listening, test systems, test questions

논문접수일: 2011. 04. 15.

심사완료일: 2011. 05. 27.

게재확정일: 2011. 06. 10.